

통화정책 전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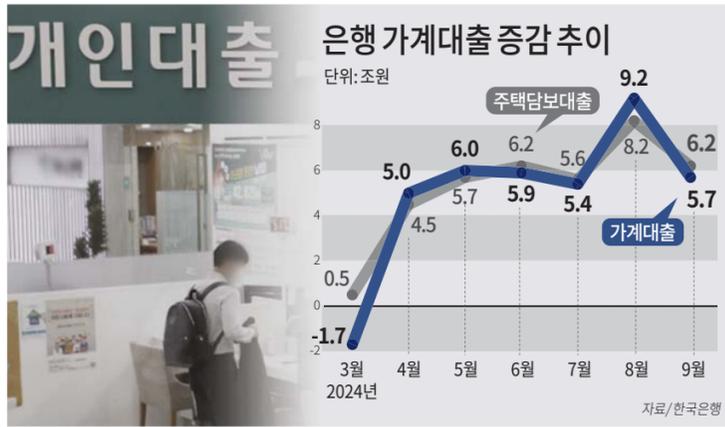
韓, 가계대출 관리 지속... 은행권 금리유지 전망 우세

금리인하에도 당국 규제 영향 주택 가격상승 기대감 여전 “대출금리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

한국은행(한은)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서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대출금리가 당장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선 오히려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 분석까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0.25%p 낮췄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시작으로 3년2개월 동안 통화긴축 기조를 고수해 왔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둔화된 경기



와 경제 성장률,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차주들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은행들이 쉽

사리 금리인하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소 2차례에서 최대 5차례까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유주택자 대출제한 ▲신용대출 제한 ▲갭투자 전세대출 불가 선언 등 금융당국 기조에 발맞춰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옥죄기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9월 가계대출 잔액은 8월(9조3000억원) 증가폭 대비 크게 둔화됐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인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6조8000억원)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지난 8월(8조2000억원)보다 2조원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리인하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고 그간 공급이 확대돼 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

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이미 금리에 선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 총량관리와 금융당국의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자율 억제를 주문한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 달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살펴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日, 엔화약세 이어지나... 이시바 총리, 금리인상 부정적 견해

이시바 총리, 취임직후 스탠스 전환 전문가들 “달러 대비 엔화약세 지속”

지난달 중순 100엔당 940원대에 머무르던 원·엔 환율이 900원대 근처까지 내렸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보다 느릴 것이라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 당초 공약과 달리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엔화가 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1.42원(0.15%) 오른 100엔당 906.77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말 기록한 922.51원보다 15.74원(1.74%) 낮은 수준으로, 지난달 11일 100엔당 947.13원까지 상승했던 원·엔 환율은 원만한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102대 일본 총리. 이시바 총리는 앞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내비쳤지만, 취임 직후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뉴시스

이는 엔화 약세의 주요 요인이었던 미·일 금리차가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 시장 기대가 잦아들면서 엔화가 다시금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9월 18일(현지시간)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일본은행(BOJ)의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금리 인상 옹호파’ 이시바 시게루가 ‘금리 인상 중단’을 전면에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를 꺾고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미·일 기준금리차 축소가 속도를 낼 것이라 기대가 모였다.

하지만 이시바 총재는 이달 초 일본 총리로 정식 취임한 직후 돌연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닛케이 지수가 4.8%나 급락하는 ‘이시바 쇼크’가 발생했던 만큼,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선 것.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금리를 올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에다 총재가 완화적인 금융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선 발언들을 뒤집는 이시바 총리의 발언에 엔화 가치는 빠르게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 가치의 척도가 되는 달러·엔 환율은 이날 하루에만 3엔 가까이 올라 장중 한때 달러당 147.25엔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이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된 9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날 발표된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중 상당수는 ‘빅컷’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9월 FOMC 직후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빅컷에 반대 의견을 낸 ‘유일한’ 위원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연준이 오는 11월 FOMC에서 금리를 0.50bp(1bp=0.01%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0%로 확신하고 있다. 이는 9월 FOMC 직후인 지난달 20일 전모창치가 50.39%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 취임과 함께 긴축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던 일본마저 신임 정부가 추가 긴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추가 경기부양책을 계획하는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강화한 것도 엔화 약세 전환 및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 404만 6000원... 금융·보험업 751만원 ‘1위’

경총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광업 전년동기 대비 6.2% 인상

업종에 따라 월평균 임금 수준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 부진 등으로 대기업 성과급이 줄면서 전체 임금총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404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인상률 2.9%보다 0.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업종별 월평균 임금수준은 금융·보험업이 751.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가스·증기업이 744.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255.7만원으로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았다. 1위인 금융·보험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업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404.6만원이다.

전년도 동기 대비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이었

다. 2023년 상반기 434.1만원에서 2024년 상반기 461만원으로 6.2% 올랐다.

반면 제조업은 428만원에서 427.4만원으로 0.2% 감소했다.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유일하게 임금총액이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 전년 동기 대비 정액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4.3%) ▲300인 미만(3.2%)로 나타났다.

다만 성과급이나 고정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특별급여 항목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는 12.3% 감소해 전체 임금수준이 0.2% 하락했다.

전 규모 사업체의 2023년도 상반기

대비 정액급여 인상률은 3.5%·특별급여는 5.7% 감소했다. 경총은 올해 상반기 임금인상을 둔화하는 최근 경기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업종이 작년 대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대기업의 특별급여 하락세가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의 실적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상반기 주요 업종 월평균 임금총액)

업종	월평균 임금총액
금융·보험	751.1
전기·가스·증기	744.5
전문·과학·기술	538
정보통신	522.7
광업	461
제조업	427.4
건설업	419.2
도소매업	406.9
운수업	402.2
교육서비스	374.2
예술·스포츠·여가	326.3
부동산	315.7
보건·사회복지	314.2
숙박음식점	255.7

단위 :만원

/경총